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비교: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김 회 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신 현 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비교하고,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탈북 청소년 202명과 남한 청소년 194명의 정신건강 문제를 탈북 청소년 심리상태검사(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PSI-NKR-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일부 정신건강 문제들에서 출신지역, 성, 연령의 주효과가 있었다.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증 수준이 높았으며, 남한 청소년은 탈북 청소년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내재화 문제들이 많았으며, 심리적 부적응의 전반적인 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품행 문제가 더 많았다.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내재화 문제, 총점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출신지역과 성 및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 및 대인 예민성 척도에서 유의미하였다. 단순효과 분석 결과, 여자 탈북 청소년은 남자 탈북 청소년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았지만, 남한 청소년들에서는 그러한 성별 차이가 없었다. 남자 고등학생은 남자 중학생에 비해 불안과 대인 예민성 수준이 높았지만, 여학생들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탈북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탈북 청소년 심리상태검사, 난민

[†] 교신저자 : 신현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Tel : 062-530-2658, Fax : 062-530-2659, E-mail : shk2004@jnu.ac.kr

2014년 2월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6,368명이며, 그 중 10세~19세는 3,229명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4). 교육부(2013)에 따르면, 정규학교 및 대안 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 수는 총 2,254명으로, 초등학교 1,159명(51.67%), 중학교 478명(31.33%), 고등학교 385명(17.00%), 대안학교 232명이다. 이 중 북한에서 출생한 경우는 1,182명(58.5%)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수는 840명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탈북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지만,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 사회, 가족적인 측면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면, 탈북 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상을 경험한다. 즉, 식량 부족이나 심한 추위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겪은 비율이 63.8%, 탈북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에게 검열을 받아 심한 긴장감을 경험한 비율이 62.9%, 다른 사람의 고문이나 공개 처형을 목격한 경우가 53%에 이른다(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남한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남북한 교육 체계 및 내용의 상이성으로 인한 학력 차이, 늦은 취학으로 인한 나이 문제, 상급 과정 진학 문제,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등을 겪고 있다(길은배, 문성호, 2003).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편견, 차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유가효, 방은령, 한유진, 2004)과 그로 인한 열등감, 대인기피, 소외감, 좌절감과 패배감 등도 존재한다(양영은, 배임호, 2010; 이현심, 박주현, 최덕경, 2011). 탈북 청소년의 가정에 가족 갈등이 존재한다는 연구들은 북

한 사회에서 습득한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와 남한 사회의 민주적인 사회문화적 질서에 빠른 적응을 보이는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행태가 충돌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길은배, 문성호, 2003; 이기영, 성향숙, 2001).

북한을 탈출하는 것부터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기까지의 과정들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이 보여주듯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이들이 발달과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청소년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신체적 성장, 호르몬의 분비로 인한 성적 변화 등과 같은 생리적인 변화 외에도 심리적으로 자아의식이 발달하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과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아웃사이더들에게는 정체감 형성 과정이 특별히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자신에게 익숙한 모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때문이다(Goodnow & Espin, 1993).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 탈북 청소년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와 함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양계민, 황순택, 2008;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6).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나 경험 외에도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현이나 경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이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거나 심리장애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차는 처음에는 양적 차이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질적 차이가 된다. 예를 들어, 품행장애의 경우 남아에게 더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규모 종단 연구에 의하면 4~5세 아동을 14~17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남녀의 품행 문제는 성장에 따라 달라진다. 즉, 취학 전부터 초기 초등학교 시절에 남아보다 여아의 품행 문제가 더 많이 감소한다(Lahey et al., 2006). 그러나 공격성의 양상에서 성차를 고려할 때 신체적 공격성은 남아에 더 많은 반면, 여아는 권위인물과의 갈등이나 관계적, 간접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Crick et al. 2006). 품행장애와 달리 우울증은 아동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지만 청소년기에는 여아에게서 남아의 2~3배 많이 나타난다(Carolyn, Shirlcliff, & Marceau, 2008).

이처럼 기분장애나 품행문제에서 성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생물학적 차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Hill과 Lynch(1983)의 성 강화 가설(gender-intensification)에 따르면, 여성역할의 고정관념은 의존적, 관계 지향적, 정서적, 무기력, 수동적,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촉발시키고, 이는 우울증의 위험도를 높인다. 여아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상적인 여성의 역할을 더 수용하고, 자기주장을 적게 하며, 자기 의견을 억제하고, 낮은 자기 가치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Cyranowski, Frank, Young, 그리고 Shear (2000)는 사춘기에 여성의 성 사회화와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 증가로 인해 여아에게서 친밀

감 욕구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을 겪으면 우울증에 더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품행문제는 아동기 발병과 청소년기 발병 유형에 따라 병인과 발달 과정이 다른데, 아동기 발병의 경우 신경학적 결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아의 경우 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화 압력의 결과로 품행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Grant et al., 2006).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와 행동 문제에서의 성차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 많다(김수주, 2002; 윤진, 최정훈, 1989). 문제영역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은 정신증적인 문제나 불안 수준이 높는데 비해, 여자 청소년은 신체화 증상과 우울 증상이 심하다(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 우울이나 불안, 신체화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심각하고, 공격성이나 품행 문제 등의 외현화 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다(이영진 등, 2008; 이현지, 하은혜, 오경자, 2005; 장성봉, 2003;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Keiley, Bates, Dodge, & Pettit, 2000).

이에 비해 탈북 청소년의 성차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규명한 연구 결과들은 다소 상충적이다. 여자 탈북 청소년들은 남자 탈북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과 같은 내현적인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 반면, 남자 탈북 청소년들은 일탈과 같은 외현적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박윤숙, 2006; 백혜정 등, 2007). 하지만, 내재화 문제나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고(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간이정신진단검사

의 모든 측정치들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이선운, 2005). 심리적 증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차가 존재한다. 여자 탈북 청소년들은 남자 탈북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을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안이나 긴장은 더 많이 경험한다(양계민, 황순택, 2008).

연령도 청소년의 심리적인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우울감을 경험하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02; Diane & William, 1994; Kashani, Rosenberg, & Reid, 1989).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우울 및 불안감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 강박증 증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진 등, 2008; 조경은, 2011; 하은혜 등, 2003; 허정화, 2003). 외현화 문제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내재화 문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심하다(김수주, 2002). Kashani 등(1989)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 감정, 사회적 기대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 수준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Peterson(1988)은 청소년기 초기에 경험하는 혼란스러움과 불안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들에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중학생부터 20대까지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다소 혼재되어 있다. 탈북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백혜정 등, 2007; 양계민, 황순택, 2008)가 있지만 20대까지 포함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16세~18세의 탈북 청소년이 12세~15세나 19세~21세의 탈북 청소년에 비해 대인 예민성이나 우울, 적대감 수준이 높았다(이선운, 2005). 또한 10대 탈북 청소년이 20대의 탈북 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도 낮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강효림, 2007).

연구들에 따라 연구 대상과 비교 집단, 측정 도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한적으로나마 일부 연구들은 탈북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들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양상이 남한 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들은 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탈북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들의 고유한 문제라기보다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심리적 문제들의 일반적인 발현 양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남한 청소년들에서 보이는 양상과 차이가 있다면, 이는 탈북 청소년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의 발달 양상도 특이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나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영역에서 비교 집단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즉, 탈북 청소년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성과 연령별 특성을 남

한 청소년과 비교해 본다면,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탈북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기 어려웠고, 성별이나 연령별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울이나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 분노 및 품행 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 기타 학업 스트레스나 가족 간의 갈등, 자존감 수준 등에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들의 심각도나 정신건강 문제 영역들이 규명되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나 양상들이 밝혀진다면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 개입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국내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탈북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비슷하다. 연

구에 따라 13세에서 21세, 9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14세부터 24세 미만의 연령을 탈북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4세부터 19세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 406명으로, 탈북 청소년이 206명이었고,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200명이었다. 그 중 인구학적 자료 표기 등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 10건을 제외하고 탈북 청소년 202명, 남한 청소년 194명 등 총 3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탈북 청소년은 남학생이 94명(46.5%), 여학생이 108명(53.5%)이었고, 그 중 14세~16세는 33명(16.3%), 17세~19세는 169명(83.7%)이었다.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교육 기관) 내에 있는 하나돌학교가 35명(17.3%), 탈북 청소년 전문 교육기관인 한겨레중고등학교가 115명(54.5%),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대안학교가 57명(28.2%)이었다. 남한 사회에 거주한 기간은 1년 미만이 75명(37.1%)이었고, 1년~3년이 60명(29.7%), 3년~5년 40명(19.8%), 5년 이상은 27명(13.4%)이었으며, 강제로 북한에 송환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1명으로 10.4%를 차지했다.

남한 청소년은 K광역시와 J도에 위치한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이었다. 총 194명 중 남학생이 97명(50.0%), 여학생이 97명(50.0%)이었으며, 중학생이 98명(50.5%), 고등학생이 96명(49.5%)이었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탈북 청소년(n=202)			남한 청소년(n=194)	
	구분	빈도	%	빈도	%
성	남	94	46.5	97	50.0
	여	108	53.5	97	50.0
학년	중학생	33	16.3	98	50.5
	고등학생	169	83.7	96	49.5
학교	하나둘학교	35	17.3		
	한겨레중고등학교	110	54.5		
	대안학교	57	28.2		
정착 기간	1년 미만	75	37.1		
	1년~3년	60	29.7		
	3년~5년	40	19.8		
	5년 이상	27	13.4		

의 성별 분포에는 차이가 없었으며($\chi^2=.48, p>.05$), 탈북 청소년에서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았다($\chi^2=52.22, p<.001$).

도구

탈북 청소년 심리상태검사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김희경과 신현균(2013)이 개발한 탈북 청소년 심리상태검사(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PSI-NKR-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탈북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5개의 내재화 척도(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2개의 외현화 척도(분노, 품행 문제), 4개의 보충 척도(정신증,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 총 11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98문항이며, 0점~2점까지의 3점 척도(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내재화 척도는 정서적인 문제의 지표로서, 총 53문항이며, 우울, 불안, 대인 예민성 소척도는 각각 11문항이고, 신체화 척도는 10문항,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는 8문항이다. 외현화 척도는 행동 문제의 지표로서, 분노와 품행 문제 척도 각각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충 척도들은 특정 영역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증 척도는 망상이나 환각, 비현실적인 사고 등을 측정하며, 7문항이다. 낮은 자존감 척도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 무능력감, 패배감, 자신감 부족 등을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 스트레스 척도는 공부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측정하며, 5문항이다. 가족 문제 척도는 8문항이며, 가족과의 관계 문제, 지지 부족 등을 측정한다. 총점은 심리적 부적응의 전반적인 지표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탈북 청소년에서 각 소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우울 .88, 신체화 .84, 불안 .86, 대인 예민성 .82, 외상후 스트레스 .81, 분노 .86, 품행 문제 .62, 정신증 .67, 낮은 자존감 .86, 학업 스트레스 .71, 가족 문제 .75였고, 내재화 척도는 .95, 외현화 척도는 .84, 전체 척도는 .97이었다. 남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 .84, 신체화 .85, 불안 .86, 대인 예민성 .82, 외상후 스트레스 .78, 분노 .86, 품행 문제 .66, 정신증 .72, 낮은 자존감 .88, 학업 스트레스 .70, 가족 문제 .66이었고, 내재화 척도는 .94, 외현화 척도는 .83, 전체 척도는 .96이었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전체에서는 우울 .87, 신체화 .85, 불안 .86, 대인 예민성 .83, 외상후 스트레스 .81, 분노 .86, 품행 문제 .64, 정신증 .69, 낮은 자존감 .87, 학업 스트레스 .70, 가족 문제 .72이었고, 내재화 척도는 .95, 외현화 척도는 .83, 전체 척도는 .96이었다.

자료 수집 절차

탈북 청소년의 경우, 하나둘학교는 임상심리전문가 1인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고, 한겨레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는 교사들이 실시하였다. 남한 청소년의 경우, 교사들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개인적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원하지 않으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응답자에게는 간단한 문구류를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소척도별로 평균을 산출하였고,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한 출신지역(북한과 남한)과 성, 연령의 이원 및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우 구체적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그림 1은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각 영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탈북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내재화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척도는 품행 문제였다. 탈북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1)=7.48, p<.001$). 내재화 문제들인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들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외현화 문제에서는 분노 척도가 품행 문제 척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t(201)=9.49, p<.001$). 보충 척도들은 낮은 자존감, 정신증, 가족 문제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한 청소년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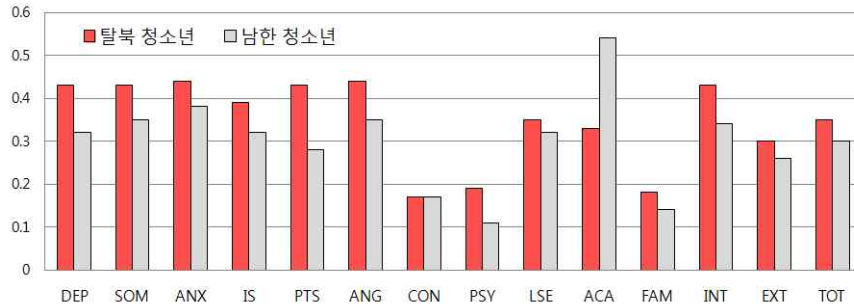


그림 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주. DEP: 우울, SOM: 신체화, ANX: 불안, IS: 대인 예민성, PTS: 외상후 스트레스, ANG: 분노, CON: 품행 문제, PSY: 정신증, LSE: 낮은 자존감, ACA: 학업 스트레스, FAM: 가족 문제, INT: 내재화 문제, EXT: 외현화 문제, TOT: 총점, 각 소척도들과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점의 수치는 해당 척도들의 합산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값임.

문제는 학업 스트레스였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제는 정신증이였다. 남한 청소년들 역시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보다 많았다 ($t(193)=4.57, p<.001$). 내재화 문제들은 불안, 신체화, 우울,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외현화 문제에서는 분노 척도가 품행 문제 척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t(193)=6.36, p<.001$). 보충 척도들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가족 문제, 정신증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의 차이

출신지역, 성, 연령의 주효과 분석 결과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변량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출신지역(북한, 남한), 성(남, 여), 연령(중, 고)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정신건강 측정치들에서 출신지역과 성, 그리

고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먼저, 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증, 학업 스트레스에서 출신지역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각각 $F(1, 388)=7.04, p<.01$; $F(1, 388)=5.84, p<.05$; $F(1, 388)=26.20, p<.001$. 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증은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높았지만, 학업 스트레스는 남한 청소년이 탈북 청소년보다 더 심했다. 그 외 다른 척도들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의 주효과는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품행 문제,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내재화 문제, 총점 척도에서 유의미하였다, 각각 $F(1, 388)=15.11, p<.001$; $F(1, 388)=5.23, p<.05$; $F(1, 388)=15.61, p<.001$; $F(1, 388)=7.60, p<.01$; $F(1, 388)=10.57, p<.001$; $F(1, 388)=7.45, p<.01$; $F(1, 388)=4.15, p<.05$; $F(1, 388)=12.57, p<.001$; $F(1, 388)=7.47, p<.01$.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수준이 더 높았으며, 자존감이 낮았고,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한 정서적인 문제들의 지표인 내재화 문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표 2. 출신지역, 성, 연령별 정신건강 문제 평균(표준편차)

출신 지역	성별	연령	시례 수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	분노	폭행 문제	정신증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	내재화 문제	외원화 문제	총점	
남	전체	중	14	.13(.34)	.29(.38)	.18(.20)	.13(.17)	.32(.46)	.32(.46)	.21(.19)	.09(.18)	.10(.19)	.16(.16)	.14(.20)	.19(.27)	.27(.31)	.18(.24)	
		고	80	.37(.39)	.38(.40)	.38(.34)	.37(.29)	.41(.38)	.43(.42)	.43(.42)	.20(.21)	.19(.26)	.33(.37)	.36(.37)	.16(.21)	.38(.31)	.31(.27)	.33(.25)
		전체	94	.34(.34)	.36(.39)	.35(.33)	.33(.29)	.38(.39)	.41(.43)	.41(.43)	.20(.21)	.17(.25)	.29(.36)	.33(.36)	.15(.20)	.35(.31)	.31(.27)	.31(.25)
북한 여	전체	중	19	.47(.34)	.38(.26)	.57(.37)	.43(.34)	.51(.42)	.46(.32)	.14(.17)	.26(.28)	.42(.33)	.35(.38)	.14(.19)	.47(.28)	.30(.21)	.39(.24)	
		고	89	.53(.45)	.52(.41)	.51(.44)	.44(.41)	.47(.47)	.47(.50)	.47(.47)	.47(.50)	.13(.19)	.40(.42)	.33(.40)	.21(.33)	.49(.37)	.30(.31)	.40(.31)
		전체	108	.52(.44)	.50(.38)	.52(.42)	.44(.39)	.48(.46)	.47(.47)	.47(.47)	.14(.18)	.20(.27)	.40(.40)	.33(.40)	.19(.31)	.49(.35)	.30(.29)	.40(.30)
전체	전체	중	33	.33(.38)	.34(.30)	.41(.37)	.30(.32)	.39(.45)	.40(.39)	.17(.18)	.19(.26)	.29(.32)	.27(.32)	.14(.19)	.35(.31)	.28(.26)	.30(.26)	
		고	169	.46(.43)	.45(.41)	.45(.40)	.40(.36)	.44(.43)	.45(.47)	.45(.47)	.17(.20)	.19(.26)	.36(.40)	.34(.39)	.18(.28)	.44(.34)	.31(.29)	.37(.29)
		전체	202	.43(.42)	.43(.39)	.44(.39)	.39(.35)	.43(.43)	.44(.45)	.44(.45)	.17(.20)	.19(.26)	.35(.38)	.33(.38)	.18(.27)	.43(.34)	.30(.28)	.35(.28)
남	전체	중	48	.21(.30)	.29(.35)	.23(.28)	.23(.29)	.26(.32)	.31(.32)	.21(.25)	.10(.21)	.25(.36)	.37(.40)	.20(.26)	.24(.26)	.26(.23)	.24(.23)	
		고	49	.33(.28)	.39(.37)	.44(.39)	.36(.27)	.34(.40)	.39(.41)	.39(.41)	.22(.20)	.13(.25)	.34(.32)	.60(.39)	.10(.13)	.37(.28)	.31(.25)	.33(.22)
		전체	97	.27(.29)	.34(.36)	.34(.35)	.29(.29)	.30(.36)	.35(.37)	.35(.37)	.21(.22)	.11(.23)	.30(.34)	.49(.41)	.15(.21)	.31(.28)	.28(.24)	.29(.23)
남한 여	전체	중	50	.35(.37)	.39(.35)	.39(.38)	.31(.33)	.22(.26)	.36(.41)	.11(.15)	.09(.17)	.28(.39)	.51(.43)	.13(.20)	.34(.27)	.23(.24)	.29(.24)	
		고	47	.40(.37)	.47(.43)	.46(.34)	.36(.39)	.31(.30)	.33(.40)	.33(.40)	.15(.19)	.13(.23)	.40(.41)	.70(.47)	.12(.18)	.40(.30)	.24(.26)	.35(.24)
		전체	97	.37(.36)	.43(.40)	.42(.36)	.33(.36)	.36(.28)	.34(.41)	.34(.41)	.13(.17)	.11(.20)	.34(.40)	.60(.45)	.12(.19)	.37(.29)	.24(.24)	.32(.24)
전체	전체	중	98	.28(.34)	.34(.35)	.31(.34)	.27(.31)	.24(.29)	.33(.37)	.16(.21)	.10(.19)	.27(.38)	.44(.42)	.16(.24)	.29(.27)	.24(.23)	.26(.23)	
		고	96	.36(.32)	.43(.40)	.45(.37)	.36(.33)	.33(.35)	.36(.40)	.19(.20)	.13(.24)	.37(.37)	.65(.43)	.11(.15)	.39(.29)	.27(.25)	.34(.23)	
		전체	194	.32(.33)	.38(.38)	.38(.36)	.32(.32)	.28(.32)	.35(.39)	.17(.20)	.11(.22)	.32(.37)	.54(.44)	.14(.20)	.34(.28)	.26(.24)	.30(.23)	
남	전체	중	62	.20(.30)	.38(.32)	.22(.26)	.21(.27)	.25(.35)	.31(.36)	.21(.23)	.10(.21)	.22(.34)	.32(.37)	.19(.25)	.23(.26)	.26(.25)	.23(.23)	
		고	129	.36(.35)	.50(.41)	.40(.36)	.37(.28)	.38(.39)	.41(.42)	.41(.42)	.21(.21)	.16(.26)	.33(.35)	.45(.39)	.14(.18)	.38(.29)	.31(.26)	.33(.24)
		전체	191	.31(.35)	.46(.39)	.34(.34)	.32(.29)	.34(.38)	.38(.40)	.21(.21)	.14(.24)	.29(.34)	.41(.39)	.41(.39)	.15(.21)	.33(.29)	.29(.26)	.30(.24)
전체	전체	중	69	.38(.36)	.34(.34)	.44(.38)	.35(.33)	.30(.33)	.39(.39)	.12(.16)	.14(.22)	.32(.38)	.46(.42)	.13(.20)	.37(.28)	.25(.23)	.31(.24)	
		고	136	.48(.43)	.50(.41)	.50(.41)	.41(.40)	.42(.43)	.42(.47)	.42(.47)	.14(.19)	.17(.25)	.40(.41)	.46(.46)	.17(.29)	.46(.35)	.28(.29)	.38(.29)
		전체	205	.45(.41)	.46(.39)	.48(.40)	.38(.38)	.38(.40)	.41(.45)	.41(.45)	.13(.18)	.16(.24)	.37(.40)	.46(.44)	.16(.26)	.43(.33)	.27(.27)	.36(.27)
전체	전체	중	131	.29(.35)	.34(.34)	.34(.35)	.28(.31)	.28(.34)	.35(.38)	.16(.20)	.12(.21)	.27(.36)	.40(.40)	.16(.22)	.31(.28)	.25(.24)	.27(.24)	
		고	265	.42(.40)	.44(.41)	.45(.39)	.39(.35)	.40(.41)	.42(.45)	.42(.45)	.17(.20)	.17(.26)	.37(.39)	.45(.43)	.16(.24)	.42(.33)	.30(.28)	.36(.27)
		전체	396	.38(.39)	.41(.39)	.41(.38)	.35(.34)	.36(.39)	.40(.42)	.40(.42)	.17(.20)	.15(.24)	.33(.38)	.44(.42)	.16(.24)	.39(.32)	.28(.26)	.33(.26)

표 3. 출신지역, 성 및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차이 변량분석 결과표

정신건강 문제	변량원	SS	MS	F	η^2	정신건강 문제	SS	MS	F	η^2
우울	출신지역(A)	.20	.20	1.41	.004	정신증	.34	.34	5.84*	.015
	성(B)	2.12	2.12	15.11***	.037		.12	.12	2.12	.005
	연령(C)	.95	.95	6.76**	.017		.03	.03	.56	.001
	A×B	.37	.37	2.64	.007		.14	.14	2.51	.006
	A×C	.07	.07	.52	.001		.01	.16	.16	.000
	B×C	.28	.28	2.01	.005		.11	.11	1.82	.005
	A×B×C	.07	.07	.51	.001		.14	.14	2.44	.006
	오차	54.52	.14				22.36	.06		
수정합	59.00				23.22					
신체화	출신지역(A)	.00	.00	.02	.000	낮은 자존감	.00	.00	.03	.000
	성(B)	.77	.77	5.23*	.013		1.06	1.06	7.45**	.019
	연령(C)	.74	.74	5.03*	.013		.72	.72	5.04*	.013
	A×B	.02	.02	.10	.000		.40	.40	2.85	.007
	A×C	.01	.01	.08	.000		.00	.00	.01	.000
	B×C	.01	.01	.06	.000		.17	.17	1.20	.003
	A×B×C	.02	.02	.11	.000		.33	.33	2.32	.006
	오차	56.92	.15				55.00	.14		
수정합	59.27				57.00					
불안	출신지역(A)	.08	.08	.59	.002	학업 스트레스	4.18	4.18	26.20***	.063
	성(B)	2.11	2.11	15.61***	.039		.66	.66	4.15*	.011
	연령(C)	.76	.76	5.65*	.014		1.59	1.59	9.96**	.025
	A×B	.52	.52	3.87*	.010		.03	.03	.17	.000
	A×C	.09	.09	.63	.002		.24	.24	1.48	.004
	B×C	.67	.67	4.95*	.013		.30	.30	1.89	.005
	A×B×C	.08	.08	.56	.001		.15	.15	.93	.002
	오차	52.46	.14				61.96	.16		
수정합	56.38				69.67					
대인 예민성	출신지역(A)	.04	.04	.37	.001	가족 문제	.04	.04	.76	.002
	성(B)	.85	.85	7.60**	.019		.00	.00	.01	.000
	연령(C)	.77	.77	6.82**	.017		.01	.01	.11	.000
	A×B	.38	.38	3.37	.009		.05	.05	.96	.002
	A×C	.02	.02	.18	.000		.15	.15	2.65	.007
	B×C	.44	.44	3.93*	.010		.08	.08	1.46	.004
	A×B×C	.09	.09	.84	.002		.01	.01	.15	.000
	오차	43.47	.11				21.85	.06		
수정합	45.70				22.43					

표 3. 출신지역, 성 및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차이 변량분석 결과표 (계속)

정신건강 문제	변량원	SS	MS	F	η^2	정신건강 문제	SS	MS	F	η^2
외상후 스트레스 레스	출신지역(A)	1.03	1.03	7.04**	.018	내재화 문제	.14	.14	1.46	.004
	성(B)	.31	.31	2.15	.006		1.18	1.18	12.57***	.031
	연령(C)	.45	.45	3.05	.008		.74	.74	7.89**	.020
	A×B	.73	.73	5.03*	.013		.33	.33	3.56	.009
	A×C	.35	.35	.04	.000		.00	.00	.01	.000
	B×C	.01	.01	1.24	.000		.23	.23	2.48	.006
	A×B×C	.20	.20	1.36	.003		.05	.05	.56	.001
	오차	56.62	.15				36.43	.09		
수정합	60.19				39.29					
분노	출신지역(A)	.36	.36	2.00	.005	외현화 문제	.09	.09	1.35	.003
	성(B)	.13	.13	.71	.002		.02	.02	.30	.001
	연령(C)	.14	.14	.80	.002		.05	.05	.73	.002
	A×B	.18	.18	1.00	.003		.06	.06	.83	.002
	A×C	.02	.02	.11	.000		.01	.01	.00	.000
	B×C	.19	.19	1.08	.003		.03	.03	.49	.001
	A×B×C	.00	.00	.02	.000		.00	.00	.00	.000
	오차	69.66	.18				27.16	.07		
수정합	71.11				27.56					
품행 문제	출신지역(A)	.00	.00	.01	.000	총점	.04	.04	.60	.002
	성(B)	.41	.41	10.57***	.027		.49	.49	7.47**	.019
	연령(C)	.01	.01	.14	.000		.41	.41	6.24*	.016
	A×B	.00	.00	.09	.000		.20	.20	2.98	.008
	A×C	.02	.02	.58	.001		.00	.00	.03	.000
	B×C	.01	.01	.13	.000		.12	.12	1.89	.005
	A×B×C	.00	.00	.04	.000		.05	.05	.77	.002
	오차	15.19	.04				25.30	.07		
수정합	15.81				26.57					

주. 자유도(1, 388). * $p < .05$, ** $p < .01$, *** $p < .001$.

보였으며, 심리적 부적응의 전반적인 지표인 총점의 점수도 더 높아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인 문제가 더 많고,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품행 문제가 더 많았다.

연령의 주효과는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내재화 문제, 총점 척도에서 유의미하였다, 각각 $F(1, 388)=6.76, p < .01$; $F(1, 388)=5.03, p < .05$; $F(1, 388)=5.65, p < .05$; $F(1, 388)=6.82, p < .01$; $F(1, 388)=5.04, p < .05$; $F(1, 388)=11.46, p < .001$; $F(1,$

388)=7.89, $p<.01$; $F(1, 388)=6.24, p<.05$.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이들 정신건강 문제 측정치들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우울감이 심하고, 신체화 증상을 많이 호소하며,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감이 심하며, 학업 스트레스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외현화 문제인 분노와 품행 문제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출신지역, 성,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

다음으로, 정신건강 문제 측정치별로 출신지역과 성, 출신지역과 연령, 그리고 성과 연령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우, 출신지역과 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F(1, 388)=5.03, p<.05$). 불안은 출신지역과 성,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각각 $F(1, 388)=3.87, p<.05$; $F(1, 388)=4.95, p<.05$. 대인 예민성에서는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F(1, 388)=3.93, p<.05$). 출신지역과 성, 연령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모든 척도들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역과 성,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인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해 그 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출신지역과 성의 상호작용에 대해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탈북 청소년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F(1, 392)=3.98, p<.05$), 남한 청소년들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F(1, 392)<1, ns$). 즉, 탈북 여자 청소년은 탈북 남자 청소년에 비해 외상후 스트

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남한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불안의 경우, 출신지역과 성,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그림 3, 4). 출신지역과 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효과 분석 결과, 탈북 청소년에서는 성별에 따라 불안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F(1, 392)=11.12, p<.001$), 남한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불안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392)=2.55, ns$). 즉, 탈북 여자 청소년은 탈북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불안이 유의하게 높지만, 남한 남자 청소년과 남한 여자 청소년 간에는 불안 수준에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불안에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효과 분석 결과, 남학생들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불안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F(1, 392)=4.73, p<.05$), 여자 중학생들과 여자 고등학생들의 불안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392)=3.41, ns$). 남자 고등학생의 불안 수준이 남자 중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지만,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의 불안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인 예민성의 경우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남학생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대인 예민성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F(1, 392)=5.61, p<.05$), 여학생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대인 예민성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F(1, 392)=3.08, ns$). 남자 고등학생이 남자 중학생에 비해 대인 예민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지만,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의 대인 예민성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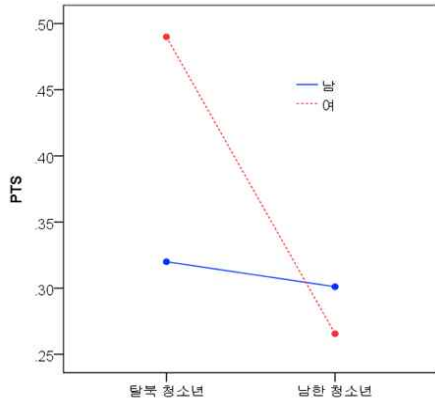


그림 2.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출신지역과 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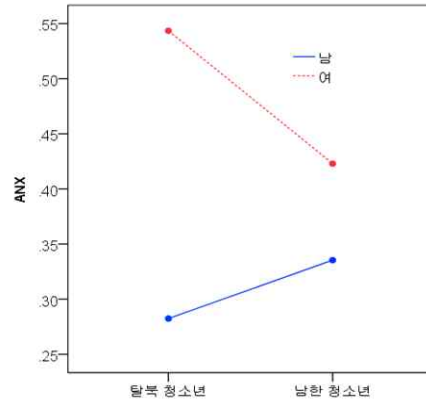


그림 3. 불안에 대한 출신지역과 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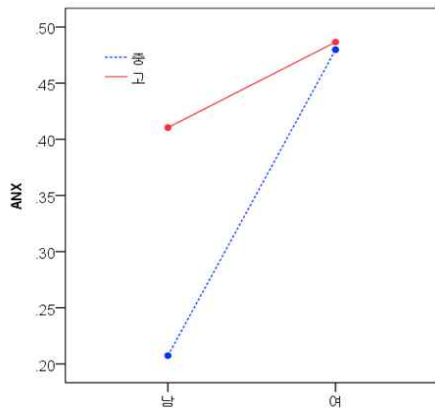


그림 4. 불안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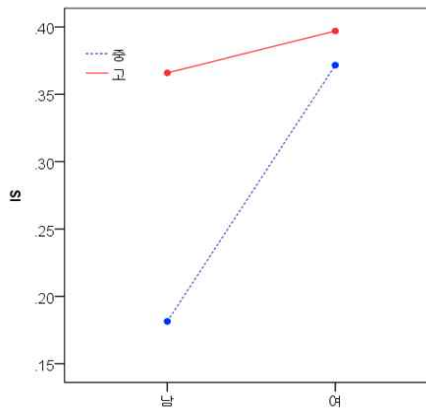


그림 5. 대인 예민성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논 의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성과 연령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4세~19세 까지의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들을 영역별로 측정하였고,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그리고 이들

의 성과 연령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 측정치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 청소년은 우울, 불안, 신체화, 대인 예민성, 외상후 스트레스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들을 외현화 문제들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청소년들 역시 외현화 문제에 비해 내재화 문제가 더 많았으며,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들 중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 청소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백혜정 등, 2007; 양계민, 황순택, 2008; 정병호 등, 2006)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들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 역시 많은 학술적 연구 결과(강승호, 정은주, 1999; 박유정, 이지연, 2009; 이경숙, 김정호, 2000; 허준경, 이기학, 2013)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열 한가지의 정신건강 문제 측정치들 중에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증, 학업 스트레스 척도뿐이었다. 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증 수준은 탈북 청소년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남한 청소년이 탈북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그 외 우울이나 불안, 신체화 증상, 대인 예민성, 품행 문제나 분노 등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탈북 청소년의 자존감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더 낮지 않았으며, 가족관계의 문제나 지지 부족, 가족 간의 갈등 등에서도 남북한 청소년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의 양적, 질적 연구 결과들을 해석할 때 비교집단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기는 쉽지 않다.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외상적 경험과 남한에

정착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일 수 있지만, 이들의 특수성에 기초해서 모든 영역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성인 탈북 여성의 심리적인 문제를 연구한 Kim, Kim, 그리고 Lee(2013)는 여타 난민들과는 달리, 남한에 입국한 탈북 여성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심리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즉, 탈북 여성들 중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남한에 입국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남한 정부가 입국부터 지역 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탈북자만이 남한 입국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점은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학술적 연구나 치료적 접근들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남한 청소년에 비해 탈북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해서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탈북 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증 수준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탈북 청소년이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경우 남한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에서 출신지역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던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탈북 청소년 전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취약하다기보다는 탈북 여자 청소년에서 그러한

문제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정착 기간과 정신건강 문제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착 기간과 우울($r(202)=-.21, p<.01$), 대인 예민성($r(202)=-.17, p<.05$), 외상후 스트레스($r(202)=-.15, p<.05$), 내재화 문제($r(202)=-.18, p<.05$), 총점($r(202)=-.14, p<.05$) 척도들 간에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는 정착 기간이 짧을수록 우울감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 외상후 스트레스,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정신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은 상충된다. 예를 들면, 일부 연구에서는 정착 기간이 5년 이내인 탈북 청소년이 5년 이상인 탈북 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았던 반면(강효림, 2007), 다른 연구에서는 정착 기간이 길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많았다(조영아 등, 2011). 전술한 연구들에서 연구 대상자의 정착 기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신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망상이나 환각, 비현실적인 사고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 7문항 중 '내 생각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 '누가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것 같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들이 알 것 같다' 문항에 대해서는 남북한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었고, 환청이나 환시, 피해망상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탈북 청소년들이 실제로 정신병

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가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성길(2001)에 따르면, 북한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입버릇처럼 훈육하는 것으로 '말 조심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끊임없는 사상 검열과 복종을 강요하는 북한 사회에서 일종의 생존전략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치는 체포나 발각의 위험이 상존하는 탈북에서부터 남한 입국에 이르는 과정 동안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는 이 생존전략이 타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거리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 형성이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담 과정에서 다루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업 스트레스는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남북한 교육 체계 및 내용의 상이성으로 인한 학력의 차이, 탈북 기간 동안의 학업 공백과 늦은 취학으로 인한 나이 문제, 상급 과정에 진학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학업 적응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길은배, 문성호, 2003; 홍덕기, 2002).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도 중학생에서 12.9%, 고등학생에서 28.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만길, 2010). 본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남한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업 적응 문제보다는 학업 스트레스(예를 들면, 공부를 잘 할 자신이 없다, 학교생활이 지겹다, 공부를 하기가 싫다 등)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

년들을 위한 학교나 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한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남한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일부 정신건강 측정치들에서만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달리, 성과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의 차이는 보다 많은 영역들에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을 함께 고려할 때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 신체화, 불안, 대인 예민성 수준이 더 높았으며, 자존감이 낮았고, 학업 스트레스도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남자 청소년은 품행 문제에서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반면, 품행 문제와 같은 외현화 증상은 남자 청소년에서 더 많다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들(김수주, 2002; 윤진, 최정훈, 1989; 장성봉, 2003; 하은혜 등, 2003; Carolyn et al., 2008)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자 탈북 청소년들은 내현적인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고, 남자 탈북 청소년들은 외현적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박윤숙, 2006; 백혜정 등, 2007)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탈북 청소년의 경우만 고려할 때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즉, 여자 탈북 청소년이 남자 탈북 청소년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특정 유형의 폭력(자살, 살인)과 재난에 노출된 경우, 여아가 특히 불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Grant et al., 2006), 본 연구 결과에서 여자 청소년이 불안 관련 증상들을 더 많이 보인 것은 이들이 폭력과 재난에 준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신건강 문제에서 이와 같은 성차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에서 성별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특히 여자 탈북 청소년에서는 불안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남자 탈북 청소년에서는 내재화 문제 보다는 품행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남자 탈북 청소년이 여자 탈북 청소년에 비해서 더 심각한 수준을 보인 정신건강 문제는 품행 문제 밖에 없었다. 남자 탈북 청소년이 남자 남한 청소년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을 보인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증 외에는 없었던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남자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개입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자 탈북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는 품행 문제의 존재 가능성과 원인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들은 연령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가 많았고, 학업 스트레스도 심했다. 외현화 척도인 분노와 품행 문제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연령의 관련성을 규명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김소아, 강민주, 2013; 이영진 등, 2008; 조경은, 2011; 하은혜 등, 2003; 허정화, 2003; Diane & William, 1993; Kashani et al., 1989). 또한, 16세~19세의 탈북 청소년들이 12세~15세나 20세 이상의 탈북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가 많다는 연구결과(이선윤, 2005)를 일부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대인 예민성에서 성의 주효과 및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불안과 대인 예민성 수준이 높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비해, 남자 고등학생은 남자 중학생에 비해 불안과 대인 예민성 수준이 뚜렷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불안을 주 문제로 하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자 탈북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때부터 불안 수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과 걱정, 수면 곤란 등의 불안 증상 및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불신감,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행동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남자 탈북 청소년은 여자 탈북 청소년에 비해 불안 수준이 높지 않지만,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는 불안 수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면, 탈북 청소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들이 또래의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신체화 증상, 자존감 문제, 가족 문제, 품행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의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들에 따라 정신건

강 문제들이 출현하는 비율이나 심각성에 차이가 있다는 일반적인 경향들이 탈북 청소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탈북 청소년의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과 NGO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리학을 비롯한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탈북 청소년에 관한 학술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개입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노력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이 발달 과정에 있다는 점과 이들의 성이나 연령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의 내용이나 심각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의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탈북 청소년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전문적인 개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초점은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관적으로 확인하고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인 변인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들이 면밀히 파악된다면 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한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이 있다.

남한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탈북 청소년들끼리만 모여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승호, 정은주 (1999).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405-424.
- 강효림 (2007). 탈북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3). 탈북학생 주요통계자료.
-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 163-186.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연구(II): 집단 심리검사에 의한 조사. *정신건강연구*, 1, 41-50.
- 김소아, 강민주 (2013).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개방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5), 61-77.
- 김수주 (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신현균 (2013).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521-541.
- 민성길 (2001). 통일과 남북 청소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유정, 이지연 (2009). 학업스트레스와 여고생의 폭식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171-187.
- 박윤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183-211.
- 보건복지부 (2002).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의식행태편.
- 양계민, 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 333-358.
- 양영은, 배임호 (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1, 189-224.
- 유가효, 방은령, 한유진 (2004).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응: 초기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85-196.
- 윤진, 최정훈 (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문제와 그 대처행동양식 -고교 및 대학생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 16-35.
- 이경숙, 김정호 (2000).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43-59.
- 이기영, 성향숙 (2001).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47, 243-271.
- 이선윤 (200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진, 방수영, 최 선, 이해국, 김병후, 김원, 이상혁 (2008). 중, 고등학생의 한국판 상태-특성 불안척도의 적용 연구. 신경정신의학, 47(5), 471-480.
- 이현심, 박주현, 최덕경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 309-341.
- 이현지, 하은혜, 오경자 (2005). 청소년기 정서 및 행동문제의 성차.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6(1), 117-123.
- 장성봉 (2003). 지역조건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실태, 학교생활실태 그리고 비행의 차이.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6).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경기도교육청.
- 조경은 (201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연변 조선족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 33-57.
- 통일부 (201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통일부 홈페이지.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27-144.
- 한만길 (2010).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허정화 (2003). 중·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준경, 이기학 (2013).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과 공격성향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조절효과 검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429-448.
- 홍덕기 (2002).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학교 및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rolyn Zahn-Waxler, C., Shirtcliff, E. A., & Marceau, K. (2008). Disorde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Gender and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275-303.
- Crick, N. R., Ostrov, J. M., Burr, J. E., Cullerton-Sen, C., Jansen-Yeh, E., Ralston, P.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preschool.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54-268.
- Cyranowski, J. M., Frank, E., Young, E., & Shear, M. K. (2000). Adolescent onset of the gender difference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 theoretical mode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21-27.
- Diane, B., & William, M. (1994). A causal model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28(4), 455-468.
- Goodnow, C., & Espin, O. M. (1993). Identity choices in immigrant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28(109), 173-184.
- Grant, K. E., Compas, B. E., Thurm, A. E., McMahon, S. D., Gipson, P. Y., Campbell, A. J., Krochok, K., & Westerholm, R. I. (2006). Stressors and child and adolescent

- psychopathology: Evidence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3), 257-283.
- Hill, J. P., & Lynch, M. E. (1983).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related role expecta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J. Brooks-Gunn, A. Petersen (Eds), *Girls at Puberty: Biological and Psychosocial Perspectives* (pp. 201-228). New York: Plenum.
- Kashani, J., Rosenberg, M., & Reid, J. (1989).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in a community samp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 871-875.
- Keiley, M. K.,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61-179.
- Kim, S. -H., Kim, H. K., & Lee, N. (2013). Psychological features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on the MMPI - 2: Latent profile analysis. *Psychological Assessment*, 25(4), 1091-1102.
- Lahey, B. B., Van Hulle, C. A., Waldman, I. D., Rodgers, J. L., D'Onofrio, B. M., Pedlow, S., Rathouz, P., & Keenan, K. (2006). Testing descriptive hypotheses regarding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737-755.
- Peterso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1차원고접수 : 2015. 07. 15.
심사통과접수 : 2015. 09. 01.
최종원고접수 : 2015. 09. 06.

A comparison of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Focused on gender and age

Hee Kyung Kim

Dongshin University

Hyun-Kyu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bjectively evaluate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NKAD, $N=202$), by comparison with South Korean Adolescents (SKA, $N=194$). The scores on 11 scales o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PSI-NKR-A) were compared across the country of origin, gender, and age. PSI-NKR-A is a brief self-report questionnaire designed to evaluate a broad range of psychological problems and symptoms of psychopathology of NKAD. MANOVA showed that NKAD had higher scores on Post-Traumatic Stress and Psychosis scales than SKA, while the latter had higher scores on Academic Stress. Female adolescent had higher scores on Depression, Somatization, Anxiety, Interpersonal Sensitivity, Low Self-Esteem, Academic Stress, Internalization Problems and Total Scores than Male adolescent, while the latter had higher scores on Conduct Problems. And High school students had higher scores on these scale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Interaction effects of country of origin by gender and gender by age on Post-Traumatic Stress and Anxiety, and Interpersonal Sensitivity scales were significant. Analysis of the simple main effect showed that NKAD Female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Post-Traumatic Stress and Anxiety scales than NKAD Males, but SKA had no difference on these scales on their gender. High school Male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on Anxiety and Interpersonal Sensitivity scales than Middle school Male Students, Female adolescent had no difference on these scales on their age. Based on these result,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described.

Key words :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Mental health problems,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Refugee